

주인 의식으로 일하는

조철민입니다.

✉ chokim1887@naver.com

☎ 010-9045-9473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 오픈할 하카 광주점을 제가 맡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요.

여러 일을 해봤지만 제게 가장 잘 맞는 일은 말로 풀어먹는 일입니다.
상품을 직접 써보고 고객께 꼭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시키는 일.
현재 주류인 상품의 단점을 어떻게 커버했고 더 강력해진 장점은 무엇인지를 납득시킬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거기에 직영점 운영과 1인 근무라는 환경은 저를 더욱 설레게 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저의 주도적인 역량은 극대화됩니다. 또한 타지에서의 2개월 교육 과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내재화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웰니스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흡연의 형태는 급변 중입니다.
이제 연초 흡연자는 SNS의 비난을 넘어 같은 흡연자 지인들에게조차 낯새로 눈총을 받습니다.

이곳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인들은 차 안이나 집에서도 필 수 있다는 이유로 권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추세고,
상무지구 카페나 동명동 술집을 가면 카운터에 충전 맡겨진 전자담배가 알록달록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전자담배는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니라 흡연자라면 꼭 지녀야 할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흡연자가 많아지는 시대는 저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몸에 덜 해롭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것인가'가 주안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HAKA 라는 브랜드를 광주에 알리고 싶습니다.
온갖 전자담배 브랜드를 경험한 헤비 유저인 저를 비롯, 이곳에선 하카 유저를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매장 쓰고 닦고 시간 떼우는 판매원이 아닌, 본사와 적극 소통하는 주요 구성원,
광주라는 블루오션에 하카를 자리 잡게 하는 야망있는 메인 멤버가 되겠습니다.